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Hymn 29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종갑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18:1-9	인 도 자
설 교	**우정이 영성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524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서정길 장로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10월 7일 제62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PARSONAGE: 6584 DISCOVERY ST. E FIFE WA 98424
TEL (253)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사울이 여섯 번에 걸쳐 다윗을 없애려고 한 일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고, 두 번은 결혼을 미끼로 하여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내 보냈고, 한 번은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여섯 번의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는 대대적으로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없애기로 작정합니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탈출시키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사울의 광기어린 적대감을 막아섰고 저지시켰습니다.

악랄한 사울의 살인 음모가 펼쳐지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비범한 우정 이야기도 함께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광기와 살기, 비열함과 증오를 겪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과의 우정을 만들게 하시고 그 우정을 통해 그가 경험하는 적대감을 대처하게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맺는 관계를 이용하고 사기치고 배신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성공의 처세술로 여기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늘 상처를 원인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왜곡되고 비틀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우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한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끝없는 적대감 속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는 다윗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다윗이 받은 적대감을 극복하는 하늘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많은 경우에 있어 상처와 아픔의 원인인 것엔 틀림이 없지만, 제대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모든 기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으로 세상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비극과 불신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에센바흐는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천 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과의 우정으로 인해 요나단은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위험을 무릅썼으며, 왕이 될 수 있는 자신의 미래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끝까지 그 우정을 지켰습니다. 요나단은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다윗과 맺은 우정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우정의 언약 덕분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지만, 요나단은 감정적인 보상조차 거의 혹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단의 우정이 다윗의 영혼을 점령했습니다. 사울의 증오심이 결코 점령하지 못했던 곳을 요나단의 우정이 점령한 것입니다. 사울의 권력으로 한 사람의 고개를 숙이게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한 사람을 무릎 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나 힘 이런 것들로는 영혼의 한 자락도 굴복시키지 못하였지만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의 영혼을 점령하고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무도 우정을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정은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기도나 금식과 찬양이나 말씀묵상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례와 성찬에서 물과 떡과 포도주와 같이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사용하여 거룩함을 체험하게 하듯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경험을 취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나단이 우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단순한 목동 생활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의를 짓밟은 자에 대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길 모두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동안 사울 왕의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기름부음 받은 그의 소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에 휘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요나단의 우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튼튼한 수평적 관계인 공동체의 우정을 통해서 지탱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나단 없는 다윗의 영성을 생각할 수 없듯이 우정을 통해 지탱되지 못하는 영성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맙니다. 순수한 우정을 나눌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람들 눈에 경건해 보여도 그것은 반쪽짜리 영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우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2. **예배 후에 9월 사역보고 및 월례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모든 사역 팀들은 사역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금주부터 가정교회별로 가정모임을 시작합니다. 가정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부흥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4. **친교식사 후 가정교회 인도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5. **교인주소록이 준비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오현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 예배처소 외부를 Paint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520.00	
감사헌금:	$200.00	
주일헌금:	$70.00	
특별헌금:	$500.00	**합 계: $1,29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